



와이더플래닛, 일반청약 경쟁률 1,357.98대 1 기록

▶ 청약증거금 약 2조 1,728억 원 기록... 2월 3일 코스닥 시장 입성

<2021-01-26> 소비 행태/기호 빅데이터/인공지능(AI)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 와이더플래닛(대표이사 구교식)이 수요예측에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다.

와이더플래닛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1,357.98대 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. 일반 청약 증거금은 약 2조 1,728억 원이 몰렸다. 앞서 와이더플래닛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,4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희망 밴드가를 초과한 16,0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바 있다.

와이더플래닛 구교식 대표이사는 “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사업영역을 B2B에서 B2C로 넓히는데 사용할 것”이라며 “데이터를 활용하여 초개인화된 메타 큐레이션 이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사물인터넷(IoT)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”고 설명했다.

이어 구 대표는 “공모과정을 통해 약 4,300만명의 소비자가 언제, 어디서, 어떤 소비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파악 및 분석하고 소비 행동을 예측하는 와이더플래닛 빅데이터/인공지능 플랫폼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믿고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 감사드린다”며 덧붙였다.

한편, 와이더플래닛의 상장 후 시가총액 규모는 공모가 기준 약 1,082억 원으로 내달 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.